

UN외기권 평화적이용위원회 (COPUOS) 제39차 회의 참가보고

박 경 윤/시스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I. 개 요

이 보고 내용은 UN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제39차 본회의가 1996년 6월 3일-14일까지 2 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 Vienna 소재 UN 국제센터에서 개최되어 토의·결의된 내용으로, 한국대표단일행의 관점에서 정리·요약한 것이다.

한국대표단은 Vienna 주재 한국대표부의 이승곤 대사를 단장으로 하여 이호진 공사, 최성주 1등 서기관, 외무부 군축 원자력과 강대수 사무관, 국제협약과 김성수 사무관, 과학기술처 항공우주 연구조정관실 윤현주 서기관 등 6명의 정부대표단과 참관인으로 SERI 지구환경정보연구부 박경윤 책임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소 문신행 책임연구원을 합쳐 8명이 참석하였다. 참가국은 61회원국 중 43개국이 참석했고, 8개국의 대표들이 다수 참관하였다.

본 회의의 주요 토의 사항으로는 “우주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선언”문안의 채택과 제3차 UNISPACE (UN Conference on the Exploration and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개최 및 COPUOS 회의 및 운영방식의 개혁, 우주 폐기물, 우주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공유에 대한 진전 등이었다.

II. 회의 내용

1) 의제 채택 및 의장단 선출 : 준비회의에서 설정된 임시 의제에 대한 불만으로 새의장 선출 사항이 없음과 함께 추가의제 등의 포함 문제에 대해 회의 시초부터 일본과 Spain을 포함하여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 주도국간에 심한 의견차를 보여왔으며, 의장인 Dr. Peter Hoffenhellner는 초반에 기존의 회의 규례에 따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회원국 다수의견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 운영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도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태도를 취했고, 여러 차례의 지역 국가모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회의에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로 했음.

특히 한국은 Asian 그룹을 대표하여 비공식 모임의 의견수렴사항으로 “절차의 규정”에 대한 UN 본부의 법률해석자문을 요청하여 그 견해에 대한 토의를 본회의에서 선도하게 했음.

2) UN Officer at Vienna의 Director-General (Giorgio Giacomelli)의 개회사 요지 : 저렴한 우주활용기술개발이 요청되며 앞으로 급격스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3) 의장(Peter Hohenfellner)의 개회사 요지 : 회원국들은 우주기술을 통한 전 지구의 번영

과 자원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consensus 기반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되기를 바람. 특히 법률소위의 진전에 많은 기대를 하며, positive-sum thinking 정신으로 기술 협력 추진을 바람.

4) 일반 의견 교환 (General Exchange of Views)

대다수 회원국가들은 자국의 우주과학기술 개발 활동소개와 더불어 주요의제가 됐던

- 추가의제 채택
- 의장단 선출방법
- 2차 및 3차 UNISPACE 대회 문제
- 우주기술응용의 공익 및 공평성 증진
- 외기권의 적절한 보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체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보였음.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 UNISPACE 대회 문제

1982년에 UN총회 주관으로 가졌던 제2차 UNISPACE 대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 제3차 UNISPACE대회가 곧 개최되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입장들에 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우주응용기술에 관한 UN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3차 UNISPACE 대회 개최에 대해 무기한 지연입장을 견지했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되고 있었음.

· 우주기술 응용의 공익 및 공평성 증진

우주응용에 관한 UN전문가 Dr. Adigun Ade Abiodun은 UN이 최근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우주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간명한 보고서를 낭독했음.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점은

① 우주과학과 기술에 대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이해 증진,

② 우주기술의 개발 지속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원,

③ 국가 및 전 지구차원의 사회, 경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의 기술활용 지원

부분에 대한 괄목할만한 추진 사항들인데 특히 이 중에는 한국 서울에 유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아·태위성통신협의회(APSCC)의 업적이 크게 부각되어 있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우주기술응용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몫이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선진국들은 현재의 추세에 인위적인 제한을 앞으로 추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외기권의 적절한 보전

우주기술개발의 계속적인 진전으로 외기권에 남게되는 폐기된 위성체 조각들의 수가 1cm보다 큰것만해도 현재 7만개가 넘는 수준에 달했으며 이보다 작은 잔해를 합치면 위험을 끼칠 조각의 수는 20만개 정도라고 추측되고 있음. 여기에 방사능을 포함하는 잔해들도 포함되고 있어 방사능 우주 잔해들이 지상에 낙하될 때 지구생물권에 환경오염의 위험을 갖게되므로 각국은 이구동성으로 우주 폐기물이 무절제하게 확대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고 연구가 더 활발해야된다는 입장임. 특히 한국은 “Launcher-Pays”원칙을 제안하여 우주잔해 문제 연구를 위한 기금조성을 촉구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이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의 관심을 표명했고, COPUOS에서의 한국의 활동을 부각시켰음.

5) 제33차 과학기술소위원회의 보고서

'96. 2. 11부터 2. 18간에 Austria의 Vienna에서 가졌던 UN/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제33차 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

- (a) 우주응용에 관한 UN프로그램의 진전상황 점검
- (b) 제2차 UNISPACE 대회('82 개최)의 권고사항 이행 문제
- (c)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문제와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을 위한 응용 및 보급
- (d) 외기권에서의 핵 발전 물질 사용 문제
- (e) 우주 폐기물
- (f) 우주 운반체와 우주에서의 미래활동에 관한 문제
- (g) 지구정지위성 궤도의 적절한 배분문제 검토
- (h) 지구환경과 변화에 관한 각국 및 국제적 우주활동진전사항
- (i) 우주의학을 포함하는 생명과학에 관한 사항
- (j) 천문학 관련 탐사에 관한 사항
- (k) 개발도상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소형위성 이용과 관련하여 '96년도 과학기술소위원회 주제
- (l) 제3차 UNISPACE 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것으로 제33차 회의록의 정식 접수와 더불어 이번 회기 중 이 사항들에 대해 결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이 개도국 회원 국가 대표들의 견해였으며 선진국 대표들은 가급적 더 검토하면서 신뢰성 있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년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었음.
- 6) 제35차 법률소위원회의 보고서
'96. 3. 18-28간에 Austria의 Vienna에서 가졌던 UN/COPUOS의 법률소위원회의 제35차 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
 - (a) "외기권에서 핵 발전물질사용에 관한 원칙" 재검토 문제
 - (b) 외기권의 정의 및 지구정지위성궤도이용의 공평성과 ITU의 역할 문제
 - (c)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이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가에 공동 혜택 원칙적응에 관한 법률

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몇 가지 선언문 초안들의 채택여부에 대해 선진국들의 불만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수정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되었음.

- 7) 우주기술 성과물 (Spin-off)의 파급효과 현황
우주기술개발이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우주가 모든 국가의 공유 영역인 만큼, 우주기술응용혜택은 개발도상국가에게도 공평하게 파급되어야 한다는 UN결의안의 실천 사항에 대해 개도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주장들이고 선진국들은 기술전파를 최대한으로 추진해왔다는 견해임.

특히 미국은 "우주기술 Spin-off의 파급효과 (Benefits)"에 관한 UN과 공동학술회의를 Colorado주 Fort Collins에서 '96. 4. 9-12간에 걸쳐 개최하여 발표된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일부 개도국에서는 이 회의 자체를 전시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었음.

- 8) 기타 사항

회의운영방법 개선문제로 회의 첫날부터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의장단 구성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가급적 반영하고, 회기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40차)전까지 의견수렴하에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함.

III. 회의 결과 요약

(이 부분은 외부부의 보고서 내용임)

- 가. "우주이용 혜택에 관한 국제협력 선언"안 채택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 및 응용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이 누릴 수 있도록 우주과학기술 선진국들의 국제협력 촉구 (개도국들의 요구 반영)

- 선·후진국간 협력 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해야 하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충분히 부합되어야 함을 언급 (선진국들의 이해 반영)
- * 금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향후 우주관련 국제협력의 기초가 될 전망
- 나. 제3차 UNISPACE (UN Conference on the Exploration and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개최에 관한 기본합의 도출
- 회의목적 : 환경보존, 재해 예방등 지역적 내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우주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해 우주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능력, 특히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개최년도 및 장소 : 1999년 또는 2000년, 비엔나
- 회의 형식 :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COPUOS 특별 회의
- * 내년도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의회 의제 및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유관 국제기구 참여방안 및 워크샵등 관련 행사 조직문제 검토기로 결정
- 다. COPUOS 개혁에 관한 기본 계획안 마련
- 내년도 COPUOS 본회의 전까지, 현 COPUOS 의장이 회기간 비공식회의 (intersessional informal consultations)를 통하여 지역적 구분 및 윤번제 원칙에 따른 COPUOS 의장단 재구성 문제에 관한 컨센서스를 도출토록 결정
- * 배경 : COPUOS 출범당시의 냉전상황을 반영하는 의장단 구성 양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구, 동구, 중립국그룹 별로 COPUOS 소위, 본회의 의장단 배분)에 대해 개도국 중심의 각 지역그룹이 반발

- 이번 COPUOS 본회에서는 한국이 교대회원국된후 두 해째 참가했지만 한국대표의 위상을 뚜렷하게 회원국간에 부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 한국대표는 Asia 국가 회원국 사회의시 의장 역할을 했음
 - 한국대표가 제안한 우주폐기물문제에 대해 “Launcher-Pays 원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국제 공동연구하자”는 안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표명함.
- 우주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공동기금조성 방안으로 한국이 제안한 “Launcher-Pays 원칙”안에 대한 실천강령 준비를 한국이 주도하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제3차 UNISPACE 대회가 2000년 이전에 개최될 것임으로 한국도 이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각 분야별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임.
- COPUOS 본회의 및 소위원회의 각분야별 참여를 효율적으로 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국내 실무반 (Working Group)구성과 관련 연구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후기 : COPUOS에의 참여 자문을 위한 국내 우주 과학기술 전문연구위원회(회장 : 이상설) 회의를 지난 7월 18일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갖고, 제39차 COPUOS 본회의의 결과를 당시 국내 참석자들로부터 듣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방안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식도 함께 논의 했다.

IV. 참가자 의견